

“광주 신안동 상습 침수 구역 매입해 서방천 직선화”

광주 복구, 지원사업 및 침수 예방대책 주민보고회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 배수로 신설도 검토 중 광주천 지하수로 연계… 양동복개상가 철거 건의도

‘426.4mm’ 극한 호우로 인한 170억원대 물적피해 끝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 복구가 주민 지원사업과 도심 침수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복구 신안동 서암대로 100번길 일대를 매입, 범람 우려가 있는 주변 서방천을 직선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광주천 일대 범람을 막기 위해 양동복개상가를 철거하는 복안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광주 시내 도심도 지하방수로에 대해서도 유출부를 연장, 서방천과 연결해 수위를 낮추는 해법도 제안했다.

복구는 19일 오전 복구청 3층 회의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사업 및 침수 예방대책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지난달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신안동·임동·건국동 등 주민 150여명과 문인 복구청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복구는 보고회를 통해 우선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신안동 서암대로 100번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서암대로 100번길은 서방천과 맞닿아있는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범람에 취약하다.

광주시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대에

홍수방어벽을 세웠으나 이번 집중호우 과정에서는 도심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가두는 물고름 역할을 한 탓에 극심한 침수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복구는 상습침수 우려가 있는 서암대로 100번길 일대 2000㎡를 매입, 서방천을 직선화 정비하는 것을 광주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천 직선화를 통해 범람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단면을 넓히는 한편, 기존 교각 6개의 신안철교를 재가설해 유수량을 확보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매입예정지 외에는 일대 하수관로도 개선하고 우수펌프도 신설, 홍수에·경보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한다. 관련 사업비는 약 35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복구는 이달중 사업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 침수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복구는 삼각동과 매곡동 등 용봉천이 북개된 곳의 배수가 불량하다고 판단,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용봉천 우회수로로 만드는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안할 방침이다. 신설 배수로는 용봉IC부터 영산강까지 3.8km 구간에 예상하고 있다.

광주천 일대 범람을 막기 위한 복안도



19일 오전 광주 복구청 회의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사업 및 침수 예방대책 주민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시스

발표됐다.

복구는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광주천 도심도 지하방수로 개설과 연계해 양동복개상가를 철거하는 방안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한다.

집중호우시 광주천 범람의 원인을 유속의 감소로 지목, 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태평교 위에 세워진 양동복개상가로 봤다. 광주천 범람은 장기적으로 주변 누문동 침수로 이어지는 만큼 환경부의 광주천 도심도 지하방수로 개설과 동시에 양동복개상가 철거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서방천 하부 입체 하수로를 신설, 광주천 도심도 지하방수로와 연계해 서방천의 수위 저감을 도모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건국동 내 수곡천에 대해서도 교량을

다시 짓고 수문일체형 펌프를 만드는가 하면, 농어촌공사에 용천천 일대 농배수로 개선·기초 펌프장 증설 필요성을 건의할 방침이다. 월출지구에 대해서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밖에 복구는 보고회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제·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37종의 지원사항을 안내했다.

문인 복구청장은 “이번 보고회는 침수 피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내용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향후 침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침수 예방대책 추진에 복구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배 과원 ‘미세살수장치’… 햇볕데임피해 60% 이상 줄었다 나주시, 폭염 대응 ‘미세살수장치’ 지원 본격화 여름철 고온·강광선 차단, 과실 품질·수량 향상

전국 최대의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를 포함해 최근 여름철 이상 고온과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한 과실의 ‘햇볕 데임(일소·日燒) 피해’가 늘어나면서 ‘미세살수장치’가 피해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배 과원에 미세살수장치를 설치·운영한 결과 살수 구간의 과실 햇볕데임 피해율이 살수 장치가 없는 구간보다 60% 이상 감소했다.

햇볕데임(열과) 피해는 섭씨 30도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에 의해 과실 표면이 강한 햇볕에 그을려 타들어 가는 증상이다. 과실이 쪼개지거나 심하면 과사로 이어져 상품 가치를 잃게 된다.

이 같은 피해를 크게 줄여줄 미세살수장치는 나무 상부에 분무형 노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 후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물을 분사한다.

미세 살수로 인해 잎과 과실 표면 온도가 평균 4~6도 낮아져 고온에 의한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과피 변색과 흑갈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배의 경우 수확 30~40일 전이 가장 햇볕데임에 취약한 시기인데 미세살수로 직사광선을 산란시키고 증발 냉각 효과를 주면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 과실 품질 향상과 수확량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수확을 앞둔 시기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지 않고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면 과실의 당도가 오르지 않는데, 미세살수장치를 활용하면 밤에 과원 온도를 낮출 수 있어서 당도를 끌어올리는 데도 유용하다.

여기에 이 장치를 설치하면 봄철 저온기에 꽃과 과실 표면에 얼음막을 형성해 냉해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에 나주시는 올해 총 100ha를 목표로 미세살수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 단가는 1ha당 약 800만원이다.

미세살수장치는 기존 관수시설에 분사 노즐과 추가 호스만 연결하면 별도의 모터나 관정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설치비 부담이 적고 유지와 관리도 쉽다.

나주시는 스프링클러보다 물 사용량이 적고 과원 내 미세 기후 조절에 유리하다는 분석에 따라 사업 성과를 평가 후 지원 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세살수장치 지원사업은 농가의 기후변화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고품질 나주배 생산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사업 취지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주교육청, 2026 대입 수능 원서 접수 8월 21일~9월 5일

타 시도 졸업자, 검정고시 대상자 포함… 올해부터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도입

광주교육청은 21일부터 9월5일까지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68개 고등학교(광송통신고 포함), 6개 특수학교, 시교육청(서구 화정동)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광주지역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 중(출신)인 고교에서, 타 시도 고교 졸업자·검정고시·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는 시교육청 접수처에 접수하면 된다. 수능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접수는 원칙상 불가하다. 단 수험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는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가 대리 접수할 수 있다.

올해부터 수능시험 원서접수에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돼,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원서 접수 전에 20일부터 열리는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myksat.re.kr)을 통해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입력하면 된다. 이를 통해 현장 접수 대기시간, 오류 등을 줄일 수 있다.

수험생은 사전 입력 완료 후 가상계좌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접수처에 방문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된다.

원서를 대리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 사전 입력 시스템이 제한되므로, 증명서류를 지참해 대리 접수자가 현장 접수처로 방문해야 한다. 증명서류는 접수일 기준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등본), 고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 장애인증명서, 필요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이다. 대상자별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접수

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응시원서(접수처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응시원서 부착용), 응시수수료(4개영역 이하 3만7000원/5개 4만2000원/6개 4만7000원,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는 졸업생은 현금, 교육청 접수 시 일반신용카드 준비), 신분증을 준비해 지원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확인서에 날인 또는 정자체로 서명하고, 반드시 입력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응시원서 작성, 접수, 변경은 원서 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이 기간에 선택과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올해 수능시험일은 11월13일이며 수능 성적은 12월5일 통지된다.

전체지번,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11월17~21일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해 원서 접수한 곳을 방문해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2026학년도 수능시험 원서접수 관련 안내는 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 수능 지원자는 재학생 1만1684명, 졸업생 4420명, 검정고시 등 기타 742명 등 총 1만6846명이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재학생이 1000명 이상 증가하고, 졸업생(재수생, 반수생 포함)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수능 원서접수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긴 여정을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능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생활비 흠치려고’ 20년 은인 살해, 60대 2심도 징역 35년

자신에게 평소 호의를 베풀던 ‘20년 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모(65)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11시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침입해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생활비를 흠치고자 집 안에 침입했다가 이를 목격한 A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생전 A씨는 고아로 자란 김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누나와 동생 사이로 지내며 20년 넘게 호의를 베풀었다. 직접 반찬

을 만들어 전해줬고 김씨 역시 A씨의 집을 드나들며 그 가족들과도 친분이 있었다.

범행에 앞서 김씨는 미리 옷을 바꿔입었고 A씨를 제압하기 위한 밧줄과 갈아입을 옷까지 챙겨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범행 도구를 공원 풀밭에 숨긴 뒤 옷을 갈아입고 시외버스로 탈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A씨의 가족에게 ‘부산에 머물고 있다’고 돌려대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강도 범행과 달리 살해 행위까지는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설명했다. /전민규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